

1300년 전통살려 국민과 소통하는 통도사

10월 통도사 개산대제 불교문화축제로 확대

“세간을 벗어나 불법을 찾는 것은 토끼의 뿔을 찾는 것과 같다” 합니다. 산중에 있지만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국지대찰(佛之宗家 國之大刹)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10월 1~5일 통도사 일원에서 열리는 ‘개산 1366주년 개산문화대제’를 앞두고, 주지 원산 스님이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스님은 “매년 3일이던 개산대제를 5일로 연장해 다양한 불교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사부대중은 물론 비불자들도 동참할 수 있는 열린 불교문화축제로 거듭날 것”이라며 “산중에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면 희망이라 할 수 없고, 세간에서 불법을 구할 때 자연히 포교해 우리 사회

에 불교가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산의 빛 나눔의 가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예경과 찬란, 새싹과 나눔 등 총 4가지 장르로 구성해 다채로운 불교문화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예경의 장에는 패불이운이 5일 오전 8시 경내 박물관 앞에서 패불대까지 이어지며, 어산과 100여 종의 장엄물과 150여 명의 취타대 등이 전통의식을 복원·재현한 장엄한 행렬을 선보인다. 같은 날 오후 2시 성보박물관에서는 ‘24회 패불명 특전’을 개최한다. 찬탄의 장은 개그맨 엄용수의 진행으로 가수 안치환, 강진 등이 출연하는 음악콘서트가 경내 도서관 앞 특별무대에서 개최된다. 새싹의 장은 2일 오전 10시 경내 일원에서 영축사생대회가 열리고, 3일 오후 1시 설법전에서 통도사 본·말사 부설유치원 원아들의 재공연

이 열린다. 나눔의 장은 5일 오전 10시 30분 설법전에서 통도사 재적승 및 학인스님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 및 지역문화발전공헌차 표창 등 시상식이 마련된다.

“총림의 살림살이가 크다보니 인수인계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먼저 산중의 화합과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선원과 강원, 울원과 염불원 등 4개 기구를 모두 갖춘 수도의 장으로서 내실을 기하는 수행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내년부터 주로 경전만을 수학하던 영축총림의 강원에서는 세계화시대에 발맞춰 영어와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과목이 추가된다. 그리고 불교계의 사회복지사업 활성화에 따라 사회복지과정도 새롭게 편성될 예정이다. 즉, 자장율사 개산의 가르침인 대중과의 소통을 실천하는 것이다. 원산 스님은 주지 임기 동안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자장율사 가르침의 핵심인 대중과의 소통을 실천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개산대제 주간 동안 분야별 전문

인을 초청해 명사특강을 개최한다. 10월 2일에는 삼성증권PB연구소 우승택 소장, 11월 1일 칼럼니스트 조용현 씨가 단상에 오른다. 그리고 국보와 성보가 산재한 통도사 전역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검토 중이다. 또, 통도사사비도량을 템플스테이 연수관으로 운영하고, 산문부터 일주문까지 이어지는 보행로를 황톳길로 조성해 걷기명상을 할 수 있도록 꾸밀 예정이다.

“우주가 곧 내 집이요, 통도사의 주인은 국민 모두입니다. (인제)에서는 ‘수처자주 입재개진’ 즉,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의식을 가지면 지금 머무르는 바로 이곳이 진리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모든 통도사 대중이 불자와 국민 모두와 소통하는 자세로 소임에 임해 불지종가 국지대찰의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055)382-7182 www.tongdosa.or.kr 박지원 기자

“부처님은 최초의 사회복지사”

우담어르신무료급식소 원장 마나 스님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가족과 이웃에게 소외된 어르신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지만 이 안에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담아 대접하고자 합니다. 저의 작은 첫걸음이 불교사회복지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요.”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사찰이 운영하는 첫 무료급식소가 문을 열었다. 백운사(주지 마나)는 사하촌에 ‘우담어르신무료급식소’의 개원법회를 9월 2일 봉행했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사찰이 운영하는 첫 무료급식소가 문을 열었다. 백운사(주지 마나)는 사하촌에 ‘우담어르신무료급식소’의 개원법회를 9월 2일 봉행했다.

집에서 2년간 매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점심공양을 지어왔다. 누구보다 어르신들의 기호와 입맛을 잘 알기에 최고의 밥상을 차릴 수 있는 것이다.

“지난 학기까지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던 중 부산불교연합회에서 복지부장을 맡으며, 연합회 직역이던 민들레밥집을 2년가량 운영했습니다. 그때 반송동 지역이 교양을 쌓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주후 후원인이 늘어 살림이 넉넉해지면 주 2~3회로 차츰 늘려갈 예정이다. 또한, 공양시간 이후 문화공간으로 개발해 어르신들이 교양을 쌓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마나 스님은 “부산에서도 해운대구 반송동 일대는 저소득계층이 많이 거주해, 복지관이 3곳이나 들어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이 매우 취약한 지역”이라며 “이웃 종교시설 3곳에서 일요일마다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지만 우리 불교계에서는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라 용감하게 첫 발을 내딛자는 각오로 우여곡절 끝에 개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원 직후 총 50명이 동시에 공양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300여 명 이상의 어르신이 찾아오고 있다. 한 달이 채 안됐지만 음식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자자하기 때문이다.

맛의 비결은 바로 다년간 민들레밥집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백운사 신도회원들의 손맛에 있다. 현재 식단 계획과 요리, 배식과 청소 등 무료급식의 전 과정은 백운사 신도회가 주관한다. 그런데 이를 부산 동래구 명장동 소재의 무료급식소인 민들레밥

실제로 반송동 인구의 17%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 중에는 홀로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래서 무료급식이 더욱 절실한 지역이다. 하지만 작은 단위 사찰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기란 어려운 일일 것. 그런데 스님은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서 이사 소임을 맡아, 생명나눔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부처님 사상의 핵심은 대승적 차원의 연기사상을 바탕으로 자비와 복전, 보시와 생명존중입니다. 어쩌면 부처님께서 최초의 사회복지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남을 위해 작은 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수행 자체가 사회복지가 되는 템플스테이, 자살을 방지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현재 식단 계획과 요리, 배식과 청소 등 무료급식의 전 과정은 백운사 신도회가 주관한다. 그런데 이를 부산 동래구 명장동 소재의 무료급식소인 민들레밥

박지원 기자



이대호, 강민호, 손아섭 선수는 매년 롯데 자이언츠 경기에 꿈나무공부방 청소년 및 지역 내 저소득계층 청소년을 무료로 초청하고 있다.

부산 원오사 꿈나무 육성 나선다

통도사 극락암 부산분원 원오사(주지 정관)는 10월 8~9일 양일간 원오사 일원에서 ‘꿈나무공부방 및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자선대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번 바자회에는 경복 벽안 원하 원담 일타 화엄 스님 등 고승대덕 스님들의 선사화 전시 및 판매전과 먹거리 장터, 생활용품 판매전이 경내 일원에서 운영된다.

특히, 8일 오후 2시에는 작은산사 음악회, 9일 오전 11시에는 무비 스님(범어사 대강백) 초청법회가 마련된다.

주지 정관 스님은 “배움만이 가난

을 구제할 길이라고 말하지만, 가난은 배움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며 “소외된 아이들에게 세상의 포근함과 온정의 손길이 전해진다면, 이들은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꿈나무공부방은 지역 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로 2009년 3월 9일 경내 요사채에 문을 열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3명, 2학년 2명 등 총 5명의 청소년이 수학하고 있다.

후원문의 (051) 542-7949

박지원 기자

수준 높은 불교미술을 한자리에서

통척 스님 목판화전

양산 원각사(주지 반산)는 10월 11~16일 부산 영광도서 갤러리에서 통척 스님(월명암 주지, 목판화 연구소장)의 목판화전 ‘향상일로 천성부전(向上一路 千聖不傳)’을 개최한다.

원각사 창건 31주년을 맞아 특별히 기획된 이번 전시회에는 통척 스님의 목판화 및 소장작품 30여 점이 선보인다.

전시회 주제인 ‘향상일로 천성부전’은 깨달음의 길은 성인도 전하

지 못한다는 뜻으로, 출가수행자의 수행과 일상을 정갈하면서도 단아하게 화폭에 담아냈다. 특히, 선화가 수안 스님과 일장 스님의 선사화도 함께 전시돼 수준 높은 불교미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기간 중 13~15일에는 전시장 한편에 관화체화포너가 운영되고, 다도시연회와 조월 스님의 비친금 연주회도 한자리에서 마련돼 작품 감상을 도울 예정이다.

전시회를 기획한 반산 스님은 “통척 스님의 자유로운 정신세계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닿아 있다”며



통척 스님 작품 중 불생불멸

“대중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55) 374-6313 박지원 기자

13개 강원, 불교전통의식 경연

전국승가학인 연합회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에서 전국 500여 승가학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불교전통의식 경연대회가 펼쳐진다.

전국승가학인연합회(회장 호명)는 10월 13~14일 양일간 제14교구 본사 범어사에서 ‘제23회 전국승가학인 학술및체육대회’를 봉행한다.

전국승가학인연합회가 주최하고 범어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범어사 통도사 송광사 해인사 중앙승가대 쌍계사 화엄사 수덕사 불국사 지지사 백양사 범주사 동화사 등 총 13개 강원이 참가해 경합을 벌인다.

첫날인 13일에는 오후 1시 개회법회를 시작으로 참불과 범문, 서도와 역경, 범고 등 전통강원 만이 갖

는 다양한 불교전통의식 경연대회가 범어사 일대에서 펼쳐진다.

14일에는 금정체육공원에서 축구와 족구, 배드민턴 대회 등 학인 상호 간의 일체감 형성과 화합을 도모하는 체육대회가 개최된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시상식 및 회향법회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준비위원장 호명 스님은 “전국승가학인 학술 및 체육대회는 남자들의 기량을 겨루는 경연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051) 508-3127 박지원 기자

www.hypnos114.com

아주 특별한 영지유의 세계!!

전생·빙의

“한마디 말로三生을 깨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매월 첫주 월요일 개강

-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까지 (7회 과정)
-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제공)
-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전생요법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을 물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찰력을 높여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격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형사 악사요...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tvN 엑스시스트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커버넌트대학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교수, 국제 임상최면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한국최면지도사 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원

대학교 평생교육원 최면학 강의 및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경찰관서 등에서 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요법의 이론과 실제, 전생·빙의 등

대전(042) 222-0737

대전 중구 선화동 364-8 (명상센터 3층) (도청과 대전세무서 중간지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9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1년 10월 20일까지

◆개강일시 : 2011년 10월 21일(금요일) 개강. **매주(월,금) 오후 5시~6시 30분(1시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교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편 ☎(02)741-0495, 0496